

# 2025년도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 국악부문 작품 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 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5. 10. 28(화)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2025년도 제17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 45 작품으로, 초연부문 21 작품, 재연부문 23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의 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80%),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2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 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악보와 미디 음원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재연곡의 경우 제출한 영상 및 음원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의 진행 후, 최종 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및 심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2025년도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품공모에 참여한 많은 작곡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초연과 재연 모두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심의위원 모두 1, 2차 심의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공모에 출품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국악관현악의 악기별 효과와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실험적인 음향을 추구하는 작곡가들의 독창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제례의식, 산조, 정가, 굿음악 등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다양한 관현악적 기법을 보여준 반면, 전통악기의 음향적 특성보다 작곡가 본인의 기법에 치중한 작품도 다수 있어 작곡가들의 고민과 시행착오가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예술성과 대중성, 이 두 과제를 완벽하게 추구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한 아창제에서 선정된 작품들이 국내 여러 악단을 통해 재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심의 중에도 여러 번 거론되었다.

무엇보다 국악기의 물리적, 음향적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작품에 반영한다면 연주자와 청중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심의위원 공통의 의견이었다. 과도한 특수 주법의 사용으로 음악적 연결과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는 작품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에게 소모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작곡과 연주에 참여하는 음악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손을 나란히 잡고 균형 있게 발전해 가는 아창제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 속에 발전하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